

여성인권상담시설·자활기관·지역아동센터 등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전국최초 임금현실화

도, 보수체계 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위해 보수체계를 개편했다. 이로써 여성인권상담시설,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지원시설에 근무하는 도내 87개 시설 244명의 종사자들이 분권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준의 보수를 적용받게 된다.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임금문제는 그간 사회복지계에서 꾸준히 지적한 사안이었다. 비분권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분권시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이양시설 수준을 밑돌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등 제주도내 13개 사회복지직능단체는 2014 제주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을 구성해 '비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방안'을 지난 6·4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후 민선 6기 원도정은 이 사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시작해 1월 말까지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보수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련된 보수지침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여성인권시설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별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수체계를 마련했다.

허순임 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장은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예산에 책정된다는 점으로도 운영에 상당히 여유가 생긴다"며 "분권수준과 같은 처우의 직위직급을 만든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급여체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호봉제를 적용하며, 직급도 지방이양시설과 같은 체계로 단일화 된다. 임금 인상폭은 '15년 90%, '16년 93%, '17년 96%, '18년 100%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지침이 바뀌게 되면 호봉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김일순 도 복지청소년과복지정책 담당은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종사자의 전문성 저하와 함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의 저해가 초래돼 왔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져 왔던 일선 복지현장의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지난달 20일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 장애인과 가족, 단체관계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및 장애인대상(3명)과 장애인복지유공자(38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 장애인대상 수상자 인터뷰



장애인대상
김경숙(55·제주시)

“재능기부 활동 이어갈 것”

장애인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고, 특별하지도 않다. 비장애인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장애인 동아리를 꾸리는 등 재능기부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

△주요활동= 전 지체장애인협회 조천읍분회장, 문화센터 및 복지관 출강, 도내 최초 여성장애인밴드 여울림풍물단 운영 등



장한아바이대상
고계출(52·제주시)

“장애인 부모 대표한 상으로 생각”

이 상은 장애인부모 모두를 대표해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를 보살피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호스피스 활동, 장애인 가

정 도우미 활동도 이어가며 더욱 열심히 삶을 꾸려가겠다.

△주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이사, 정신지체 1급 자녀의 양육과 재활에 힘써 제주영송학교 졸업, 10년 간 바라밀불교호스피스 봉사활동 등



장애인도우미대상
이순정(63·제주시)

“봉사 할 때는 나이도 잊어”

봉사를 할 때에는 나이가 생각나지 않는다. 힘들기 보다 즐겁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기도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다.

△주요활동= '09년부터 중증장애인 치료·이동 도우미 활동, 장애인 주말학교 보조강사 등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종사자·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2. 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법률홈닥터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제주행복기재단 • 8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변화 필요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실태 조사 결과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1~2월 서귀포시 거주 만19~65세 여성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여성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차원에서 행복인식정도, 평생교육실태 및 욕구, 평생교육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의 '현재 삶의 행복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보통수준을 나타냈다. 행복하다는 인식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직업이 없는 여성장애인보다 높게 나타

났다. 또 장애가 중증일수록,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순서로 낮게 조사됐다.

또한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평생교육참여가치인식정도(5점 척도)'는 3.49점인 보통수준으로 조사됐다. 여성장애인들의 성인 이후 평생교육참여는 23.8%만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장애가 중증이거나 직업이 없는 여성장애인, 읍면지역 거주 여성장애인에 보다 동지역 거주 여성장애인에서, 고령일수록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이 평생교

육에 참여하기 위해 해결할 과제로는 △가사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자신에게 맞는 교육모름 △참여가능한 프로그램 미흡 등이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서귀포시 거주 여성장애인들은 평생교육참여 가치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성인 이후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생교육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춘 평생교육 강좌 개설과 여성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코디하고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소영 기자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조례 통과



▲장애인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3월 18일 제주도의회 행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렸다.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 진입을 위해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가 지난달 2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정화(대천·중문·예래동), 흥기철(화북동), 강익자(비례대표), 고태순(비례대표), 유진희(비례대표), 이기봉(비례대표)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함

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직업생활과 자립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고용의무 비율 확대 △의무고용 현황조사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 조치 등이다.



5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9회 사랑의 사진 공모전	•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 공모 •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jejufooster@gmail.com)	기간: 15일(금)까지	747-3273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2회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 우리 가족의 문화가 담긴 사진 공모 •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 (jejuyoung@familynet.or.kr)	기간: 8일(금)까지	725-8005
	2015 가족문화축제	• 체험부스 및 공연 • 교육 사진전 축제 운영	17일(일) 10시~15시 장소: KBS홀 주변 누구나 참여 가능	
	제3회 부부의 날 기념행사 '오월, 봄 그리고 데이트! 부부 date day'	• 부부 레크레이션 • 부부 신작 영화관람 •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21일(목) 19시~22시 장소: 메가박스 제주 및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참가비: 부부당 6,000원	
연강병원	5월 가족교육 및 도민강좌	• '조울증' • 박상욱 전문의(연강병원 정신과)	21일(목) 17시~18시 장소: 연강병원 1층 회의실	726-790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아카데미	• 성공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 고희경 교수(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15일(금) 14시~18시 장소: 협의회 삼다수 홀 교육비: 홈페이지 참조	702-3784
		• 사회복지 현장 실습 슈퍼비전 체계 • 박영숙 관장(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20일(수) 14시~18시 장소: 협의회 삼다수 홀 교육비: 홈페이지 참조	
	특강	• 재난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 레나 도미넬리 교수 (Durham University, UK)	22일(금) 14시~17시 장소: 협의회 삼다수 홀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4월 식품기탁자



▲개인기부자(강봉철님)=생필품 43개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한뫼세상=식용유(500ml) 300개 ▲금강수산유통=수산물 72kg ▲금강축산유통=돈반골 620kg ▲김치원=김치 20kg ▲꽃비나리는뜨락=떡 311개 ▲동원F&B제주=식품 8,259개 ▲미녀들의수다=더치커피 1200ml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523모 ▲소담제주=채소 360kg ▲이든이네=건멸치 15kg ▲자연드림이도점=빵 115봉 ▲제주보리촌=보리빵 570개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859봉 ▲행복나눔마트=세제(1.5kg) 60개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70,000	3,41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405,000	2,810,000
복지사업후원	915,000	3,907,500
푸드마켓후원	2,310,000	598,82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우리 고장소식 우리가 알린다

3기 구좌어린이기자단 출범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박미란)는 지난달 11일 제3기 '구좌어린이기자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으로 구좌읍 지역아동센터가 모여 공동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어린이기자단을 양성하는 '꿈의 신문 만드는 행복기자학교'에서 올바른 미디어를 수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마을이슈를 취재해 뉴스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구좌지역 청소년 14명이 참석해 (주)작은영화제작소 돌맹이필름(대표 함주현)과 함께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 대해 안내하고 어린이기자증을 수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김가영(세화초 4) 학생은 "TV로만 보던 뉴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우리 마을의 어떤 소식을 전할지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란 센터장은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영상뉴스 제작과 함께 환경지킴이가 되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직원워크숍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틀 간 부모회 조직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은 조직에서의 역할에 대해 점검하며, 라이프스토리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식/마/당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컨소시엄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7일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통합프로그램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컨소시엄 협약식을 체결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이 처음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추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봉사단과 함께 김치 담그기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달 19일 자매결연 자원봉사 단체인 초아적십자 가족봉사단(회장 이상영)이 주관하는 김치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장애인과 회원이 같이 어울려 100포기의 김치를 담그며, 김치를 서로 먹여주는 등의 시간을 보냈다. 이상영 회장은 "앞으로도 정혜재활원에 많은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독거어르신 대상 이동상담사업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3월부터 제주도내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사업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내 총 30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월 2회 이상 전화·방문을 통해 안전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파스나 내복 등 필요물품을 방문 전달했다. 노인보호기관은 앞으로도 방임 등과 같은 노인학대 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체험 프로그램 실시



한빛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주종훈)는 지난달 14일 아이들과 함께 하구리에 위치한 스마일러 커피(Smiler Coffee) 카페에서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카페 내외의 앵무새, 파충류, 열대어 등 동물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체험하며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장 스트레스 해소 위한 문화체험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18일 시설이용인, 현대자동차 봉사팀과 함께 제주돌문화공원을 관람했다.

이번 체험은 이용장애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자원봉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민숙 원장은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고 보다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사자봉사팀 '작은디딤돌' 창단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3월 21일 종사자 봉사팀 '작은디딤돌'을 창단했다.

'작은디딤돌'은 지역사회에서 나눠준 사랑과 도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 제주애덕의집 종사자들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팀이다. 첫 봉사활동으로 올레 17코스에서 환경정화 활동인 클린올레 캠페인을 펼쳤으며,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봄 향기를 만끽, '가자! 엠마오 나들이'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센터(원장 현성훈)는 지난달 10일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성이시돌 새미은총의 동산에서 엠마오 나들이를 진행했다.

예수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실시한 이번 나들이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 공원에서 부활의 신비를 체험해 보고, 맛있는 점심과 소인국 테마파크 관람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농촌마을체험 진행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농촌마을체험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농촌을 직접 찾아가 현장 체험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



“학교폭력 예방·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지환)와 신성여자고등학교(교장 송동림)는 지난달 23일 신성여고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네트워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학교폭력 근절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

하여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비롯해 지역 단위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아라어린이집에 우쿨렐레 악기 18대 후원

(주)한라우드, 150만원 상당



(주)한라우드(대표 김혜란)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 방과 후 반에 지난 3월 16일 150만원 상당의 우

쿨렐레 악기 18대를 후원했다. 이로써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우쿨렐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 맞벌이가정 아동들에게 1인 1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라어린이집은 지난해부터 하모니카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사라요양원에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악기 연주를 배워 발표회 및 봉사 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

도내 위기 장애인가족 위해 8개 기관 업무 협약 체결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달 2일 제주장애인부모회교육장에서 8개의 지역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들은 장애인가족의 위기발생 예방 및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허찬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상호),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지연),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은영),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고현수), 삼도1동주민센터(동장 변영근), 삼도1동복지위원회의체(위원장 김순덕) 등이다.

안트레드러왕 혼디모영 ‘웃음꽃 피자’

알볼로피자, 향후 2년간 특별한 가정에 피자 지원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알볼로 피자(대표 진경임)와 지난 4월 10일 협약식을 맺고 향후 2년 동안 피자를 후원 받아 ‘웃음꽃피자’ 나눔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웃음꽃피자’는 생일, 기념일, 이사 등 특별한 날의 사연을 접수받아 월 16

가정을 선정해 원하는 날짜에 찾아가 피자를 전달한다.(사진)

복지관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어가는 요즘, 피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들의 화합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가정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했다”고 말했다.



소/식/마/당

장애학생 가족지원사업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2014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의 지원을 받아 장애학생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관은 가족지원사업으로 장애학생부모 집단상담, 가족캠프, 부모교육, 가족나들이, 부모취미활동을 운영하며, 오는 5월까지 부모교육과 부모취미활동, 그리고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추가 진행한다. 복지관은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 진행 할 예정이다.

근로교육 증진 위한 한마음대회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지난달 17일 제주시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제주시 자활사업 참여주민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한 이 행사는 제주시내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5개 기관 실무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지연 일대를 산책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2015년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설명회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양지혜)는 지난 3월 25일 하귀하나로마트 소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 장기요양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제주시 최초 사업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 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 민간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 K-POP 콘서트 무료 관람



헤정원 아가의 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14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 K-POP 콘서트’를 무료로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주)Galaxy Travel(대표 유영진)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도내 아동들과 문화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용인 및 인솔자 14명은 아이돌 가수 4팀 공연을 보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시론

5월의 노래, 정명(正名)의 향기 배어나야



김범훈

전 제주일보 논설실장

다시 맞는 5월이다. 1년 열두 달 가운데 기념일이 유독 많은 달이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11), 스승의 날(15일), 성년의 날(매년 셋째 월요일로서 18일), 부부의 날(21일)이 이어진다. 25일엔 석가탄신일이 기다린다.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달이라고들 말한다. 반면에 이를 줄줄이 챙겨야하는 입장에서는 부담 또한 적지 않다는 푸념도 나온다. 그러나 5월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가정의 달이라는 상징성에 있다. 그 상징성은 가정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어린이날 노래는 해마다 5월이면 애창되는 신나는 동요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

상’이라는 가사는 어린이의 밝고 맑은 기상이 넘쳐난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는 어른들에 의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우리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어버이날은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어버이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함께한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에게 감사의 뜻으로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자식들한테 학대받고 쫓겨나는 어버이들이 늘어나면서 빛이 바래진다.

제 빛을 잃어가는 5월의 노래

스승의 날은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추모하는 뜻도 갖는다. 그러나 교권은 폭언, 폭행, 협박 등 저급한 행위에 시달리면서 나날이 실추되는 상황으로 매몰되고 있다.

기쁨과 희망 속에 애창해야 할 5월의 노래가 갈수록 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일상의 것들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일탈의 시대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중국인들

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예의가 밝은 민족의 나라라고 평했다. 이에 근거한 말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먼 달나라 얘기만 같다.

제 이름값을 하는 세상

지금 우리사회에 절실한 것은 이른바 정명(正名)이다. 정명은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공자(孔子)의 처방은 지극히 간단하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 우며,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郡君臣民父子)’로 함축된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의 첫 번째 실천 방안은 현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일이다. 가식과 위선과 정략이 넘쳐나고 언어의 유희가 난무하는 세태에 필요한 처방이다. 그럼으로써 5월의 노래는 정명의 향기가 배어날 수 있다. 가정의 달로써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 이름값을 하는 세상, 우리에게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기고

행복한 결혼·축복받은 출산 그리고 맘 편한 육아



장지미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의 지위와 더불어 사회에 커다란 변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혼과 늦은 결혼은 출산을 감소시키는 사회문제로 또한 고령화 사회로 연결하는 고리가 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심각한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환경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경력단절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업무의 양립, 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부모 공동의 육아 환경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안정 확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및 다자녀가족 만족 페스티벌 개최, 다양한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복받은 출산을 위한 둘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급,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시설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잠정)은 1.48명으로 전남 1.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부부간의 행복한 육아생활과 맘 편히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출산 분위기 조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출산장려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갈 방침이다.

칼럼

“밥 한번 먹자”와 “내밥서”



김길웅

시인·수필가

“언제 한번 봐. 밥이나 먹자” 버스 안, 젊은이는 통화 끝에 인사말처럼 약속을 한다. 저 말은, 그냥 꿔기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보는 말이란 걸 안다.

오래 방치해 둔 약속은 곰팡내가 솔솔 풍기는 법. 그러나 ‘언제 한번’이라는 막연한 시간의 등쪽에 업힌 밥이나 먹자며 정을 모락모락 피우는 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그저 입에 붙은 두루뭇술한 말인지도 모른다.

내가 끝내 따뜻한 밥 한 끼 건네지 못한, 옛 그제라도 전화 받고 메아리로 돌려보낸 막연한 대답, “그래요, 언제 한번...” 참 미안해지는 순간이다.

제주 사람들이 늘 쓰는 말에 “내밥서”가 있다. 그러니까 고유한 제주방언인데 오묘한 의미를 지닌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라 듣는 이가 헷갈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넉넉한 인심을 담은 말

이를테면 식당에서 여럿이 함께 밥을 먹고 나오면서 식대를 지불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방언에서 ‘내밥서’는 ‘그냥 놔두세요’가 되기도 하려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내어 버리세요’가 되기도 한다. 그냥 놔두라 함은 ‘내가 요금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이고, 내어 버리세요는 음식 값을 당신이 내(어 버리)세요 하는 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코 새 말이 아니다. 제주에서 전부터 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써 온 말이다. 말은 의사전달의 수단이면서 그 시대 혹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 그냥 겉모양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속마음 곧 내면을 비추는 맑은 거울 같은 것이다.

“내밥서”는 음식 값을 내가 내마, 또는 그까짓 것 누가 냈든 상관할 게 무어냐 하는 것. 말하자면 넉넉한 인심의 단면을 드러내는 말이 아닌가 싶다. 사실 그렇다. 서넛이 같이 먹은 음식 값 혹은 차 값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랴. 어지간히 사는 형편이면 그 돈 없다고 살고 못 살지 않는다. 친한 사이에 오랜만에 밥 한 번, 차 한 잔쯤 사며 사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육지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남에게 베풀려는 후한 마음은 아무래도 본디 제주의 미풍이고 양속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이 삭막하다 보니 선량하던 제주 사람들도 많이 야박해졌다 가슴 쓸어내리기도 하지만, 아직 제주는 한국에서도 가장 인심 좋고 마음 착한 사람들이 사는 인간 청정지역이 아닐까.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면 사물이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법이다.

외롭고 어두운 곳 찾아 희망을 조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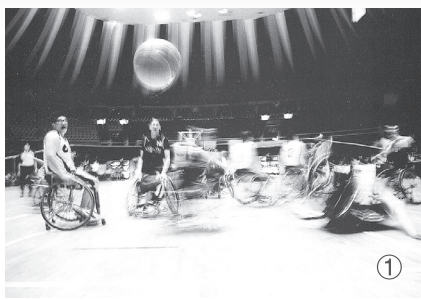
곽상필 사진작가, 열네 번째 사진전시회 열어
사회적 사명감으로 사회공헌활동 15년

신체의 반을 쓰지 못하는 탓에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해도, 커다란 카메라 두 대를 목에 건 채 현장을 누비는 사진작가가 있다. 걸음걸이가 불편하지만 어느 현장이든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한센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가 있는 곳을 누비며 이번으로 열네 번째 사진전 <최선을 다하는 장애인들>을 연 곽상필(노형동, 61세)작가를 지난달 23일 전시회장에서 만났다.

곽상필 작가는 제민일보에서 사진기자로 재직하던 중 홀연히 찾아온 뇌경색으로 중도장애를 입어 8년여의 투병생활을 보냈다.

“당시 일하던 언론사에서 파업 등 시끄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 신경이 너무 쓰이고 속도 많이 상했죠. 그 때문인지 결국 뇌경색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틀렸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곽 작가는 어두운 공간에서 오랫동안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①



③



②



④

▲ 1·2 = 지난달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최선을 다하는 장애인’ 사진전 작품들.

▲ 3·4 = 1997년도 곽상필 작가가 소록도에서 촬영한 사진작품들.

그러던 중 변화의 계기를 맞은 것은 우연히 소록도를 방문하면서부터다. 그는 한센인들을 만나며 희망을 발견한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많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곽 작가는 소록도를 주제로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 사진 전시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그리고 15년 간 장애인, 시장사람들, 소방관, 이주노동자, 4·3 등을 주

제로 사진전을 이어 왔다. 그는 전시회마다 모아진 기부금은 소록도에 전달했다. 곽 작가는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사회적 사명감을 갖는 데 있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편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도 최선을 다하는 장애인들로 정했습니다”

곽 작가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두 가지를 알렸다. 그 중 하나는 폐교된 학교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아진 금액은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중 선택해 기부할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사계절의 독도를 촬영하는 것이다.

‘곽 작가는 “앞으로도 사진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 두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010-4272-5511〉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논란

신규·변경 지자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와 협의 의무화

복지정책 줄줄이 제동... 지방자치 침해, 정책시행 지연 등 문제 지적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으로 인해 앞으로 시행되거나 변경될 지자체 사회복지 정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생기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시행하려던 신규·변경 사회복지 제도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으며, 최근 제주에서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정조례가 발의됐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준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은 신설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해 필수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대상자, 지원내용, 전달체계, 재원이 변경될 경우 협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

복지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 최중증 독거·취약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추가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담긴 협의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결과로 ‘추가협의 필요’라는 불수용통보를 받았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이 복지부 협의결과 사업불수용을 받았다가, 두 번의 협의를 거쳐서야 조건부수용 됐다.

제주도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3일 강경식 도의원(이도2동갑)이 개정발의한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가 복지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보류를 받은 것이다.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는 노인이 틀니와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를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의 시행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해, 수용통보를 받아도 해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소한 정책까지 이렇게 일일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

는 것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협의와 통보까지 90일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면, 앞으로 시급한 복지사업이 나왔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덕승(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계장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시행초기라 어떤 기준에 따라 정책들을 협의할지 명확한 부분은 없지만, 업무를 해 나가면서 사례를 수집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설탐방

(66)주사랑요양원

푸근한 작은숲 속 집처럼 따뜻한 안식처

한영희 원장 “직원이 만족해야 어르신도 행복”

돌담이 둘러놓은 샛길을 따라 조금 오르다 보면, 벚꽃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는 작은 골목이 나타난다. 그 언저리에 커다란 정원을 닮은 요양원이 있다. 올해로 11년째 운영 중인 애월읍 애월리에 자리한 주사랑요양원이다. 한영희 원장은 “사람들은 보통 요양원을 병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우리는 가정·집과 같이 본다”며 “어르신들이 여러 가족들과 지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도록 요양원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사랑요양원은 고 김계호 목사의 기부로 지난 2003년 설립됐다. 지금은 작고하신 김계호 목사는 미국과 남미 등지를 돌며 목회를 해왔다. 사후에는 평소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도록 5000평의 부지를 기부했다. 현재 이 부지에는 주사랑요양원과 함께 소규모요양원, 어린이집도 함께

설립됐다.

애월교회 부설 주사랑요양원은 종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치매·중풍노인을 전문적으로 요양하고 섬김과 나눔의 정신 실천, 지역사회 섬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입소어르신은 주사랑요양원에 84명, 소규모요양원에 10명이 계신다. 직원은 요양보호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사랑요양원은 다양한 장점을 가졌다. 시내권에서 20분이면 도착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에는 숲길 등이 조성돼 자연과 친근한 환경을 느낄 수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다르게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눈여겨볼만 하다. 실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한지공예, 요리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다. 흥은주 사무국장은 “특히 한지공예 프로그램



▲주사랑요양원은 일일시장놀이, 가든파티, 행복나눔잔치 등을 열어 입소어르신과 지역 사회 어르신들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는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평소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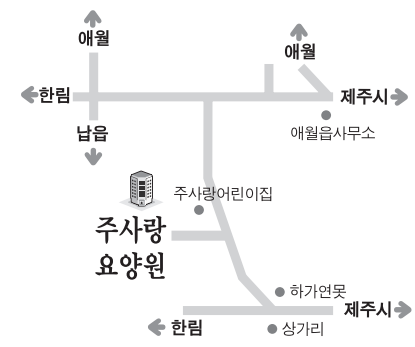
실외프로그램으로 일일시장놀이가 분기별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에 팔만한 것들을 요양원에서 미리 준비해 두고, 어르신들이 100원, 2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직접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 떡볶이와 순대같은 시장 음식은 물론 각설이놀이 등을 열기도 한다. 또 삼겹살이나 장어구이 같이 평소 실내에서 먹기 어려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가든파티도 연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하고 있으며, 매 격년마다 행복나눔잔치를 열어 애월읍 내 26개의 마을 중 8곳의 경로당 어르신을 초대한다. 행사로는 노래자랑과 각종 체

협행사들이 준비되며, 올해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요양원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 동아리 활동을 위해 오름동아리와 난타동아리에 강사비와 차량렌트,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외 우수시설 방문도 매년 이어가고 있다.

한 원장은 “직원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좋은 치료와 수발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어르신이 모두 즐거운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20

초상권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 추억으로 남기는 일은 무척 즐거운 일상이다. 이럴 때 어떤 친구들은 가끔 “너 왜 내 사진 올렸어? 내 초상권 침해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며 농담을 던지는데 경우

에 따라 초상권 문제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시내 한 복판 변화가에 뉴스 카메라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찍고 있었는데 무심코 지나친 다음 날 부정적인 기사의 자료 화면으로 내 얼굴이 TV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초상권’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초상권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 여기서 ‘초상’이란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초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초상권의 의미

법적인 의미에서 초상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초상권을 구체적으로 다룬 규정은 없고 판례가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보호하는 초상권의 내용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

리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인데 쉽게 말해 찍히지 않을 권리, 공개되지 않을 권리,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모두 초상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초상권 침해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고, 자기의 초상이 사전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 또는 승낙된 범위를 넘어서 사용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회 연주 장면에서 연주자의 얼굴이 노출된 경우,

TV고발 프로그램에서 익명 처리를 약속했지만 모자이크가 약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방송국 내부 시사회용 사용을 조건으로 촬영을 승낙했으나 부정적인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방영된 경우 등이 후자의 예가 된다.

누군가 내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나의 동의 없이 그의 미니홈피에 올리거나 보도 자료로 사용했을 때에는 우선 삭제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